



■ 올 시즌 성적 (25일 현재)

타율: 0.215 177타수 38안타

타점: 14

득점: 25

도루: 6

안치홍, 마음 비워 활로를 찾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등 엘리트코스 밝아왔던 프로5년차

2할 초반 타율에 슬럼프 헤어지지 못하자 한때 2군 자청

“목표없이 뛰는게 목표” 모든 것 비우니 야구가 새롭게 보여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마음을 비웠다. 시즌 목표에 대해 물으면 힘있는 타자는 한방과 타점, 빠른 선수는 득점과 도루를 말한다. 일단 목표를 크게 잡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안치홍에게는 ‘목표 없이 뛰는 게’ 목표다. 물론 시즌 전에는 나름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다. 내년 시즌 아시안게임도 있는 만큼 안치홍 이상의 안치홍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시즌 반환점을 조금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치홍은 겨우내 그려왔던 목표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안치홍의 올 시즌 성적(25일 현재)은 177타수 38안타(0.215), 14타점 25득점 6도루. 2010년 0.291의 타율을 시작으로 2011년 3할 타자(0.315)가 됐고 지난 시즌에도 0.288의 타율로 64타점을 찍어냈던 안치홍의 명성에는 한참을 밀도는 성적이다. 헛도는 방망이에 안치홍은 지난 5월13일 2군행을 자처했다. 부상이 아닌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간 것은 프로 5년차 안치홍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1군에서 프로 데뷔를 하고 2년차였던 2010년에는 이내 주전 자리를 꿰차며 전 경기 출장기록도 썼다.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최연소 한국시리즈 홈런 그리고

영예의 골든 글러브도 들어올리며 엘리트 코스를 밝아왔던 선수다. 그랬던 안치홍이 타격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2군행을 선택했다. 안치홍은 “나에게는 좋은 시간이 됐다. 차분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비우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2군에서의 복귀 후에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 안치홍의 방망이는 자신있게 돌아가고 있다. 안치홍을 다급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안치홍은 “매년 시즌 초반에 괜찮은 성적이 나왔다. 그러다가 시즌 중반 체력이 떨어지면서 타격 페이스가 내려갔다 다시 상승세를 타는 패턴이었다. 초반에 좋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올 시즌 초반 부진이 큰 부담이 됐다”며 “초반에 좋지 않으니까 타율에 대한 부담도 더해지고 그게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운도 많이 따르지 않았다. 잘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기도 하고 상대의 호수비

에 막히면서 될 듯 말듯 타격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안치홍은 “초반 성적이 좋았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페이스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잘 치고도 안타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졌다. 내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욕심도 많고 생각도 많은 선수.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으로 치열한 프로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왔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성격이 예상치 못한 초반 부진을 맞이한 안치홍을 무기력하게 했다. 뒤늦게 마음을 비우고 나서야 야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안치홍은 “주변에서 감을 잡은 것 같다고는 하지만 아직 100%의 느낌은 아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느 정도 내 타이밍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 특별한 목표 없이 올 시즌을 보내겠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① 덕아웃 말말말

▲올해까지만 참으라고 하세요 = 두산의 장신 투수 니퍼트(203cm)가 원정 트레이너실 천장이 낮아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선동열 감독, 내년에는 새 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며.
 ▲선동열 감독 계시잖아 = 양상문 해설위원, 두산 이종욱이 기(氣)를 받았으면서 KIA 덕아웃으로 걸어오자, 양 해설위원은 자신이 찾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자 이종욱이 자꾸 기를 받으려 악수를 청한다

▲‘발등부상’ 김주형 “휴식기에 잠을 너무 자서 온몸이 아파요”
 고 설명했다.
 ▲(이)종욱이가 왜 이렇게 잘하죠? = 이종욱의 행동을 지켜보던 홍성흔, KIA 덕아웃을 향해.
 ▲FA인가? = 홍성흔의 얘기에 선동열 감독이 웃으며, 올 시즌이 끝나면 FA(자유계약) 자격을 얻는 이종욱은 25일 현재 타율 0.330, 24타점 35득점 13 도루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제 2의 박병호가 나타났어요 = KIA와 넥센의 퓨처스 리그 중계를 보고 나온 홍재호, 고양 원더스 출신의 안태성(넥센)이 무시무시한 홈런을 때리더라며.
 ▲나이 든 선수에게 유리하고, 젊은 선수에게 불리하죠 = 김용달 타격 코치, 길어진 휴식기가 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경험 많은 선수 입장에서 빨리 경기 감각을 찾는 만큼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이 되지만 경험 부족의 선수들은 공에 대한 반응 속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온몸이 아파요 = 김주형, 지난 한화와의 경기에서 공에 맞은 발등 부위는 괜찮냐는 질문에, 부상 부위는 큰 문제가 없는데 휴식기 동안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온몸이 쑤신다며.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갔네요 = KIA 프런트, 26일 투수 이대환이 등록되고 한승혁이 엔트리에서 말소됐다며, 지난 5월21일 1군에 등록됐던 3년차 한승혁은 한 달 동안 4차례 등판해 5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사이영상’ 클리프 리와 30일 맞대결... 7승 재도전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26)이 30일 오전 11시 10분(이하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승 수확에 다섯 번째로 도전한다. 다저스와 필리스 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게임노트에서 류현진과 클리프 리(필라델피아)를 30일 선발투수로 각각 예고했다. 6월 네 차례 등판에서 승리없이 1패만 안아 시즌 성적 6승(3패), 평균자책점 2.85에 머문 류현진은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살려 이달 마지막 등판에서 승수를 쌓겠다는 각오로 마운드에 오른다. 류현진은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6.2이닝동안 안타 8개를 맞았으나 1점으로 상대 타선을 묶어 승리(3-1)의 발판을 놓는 등 홈인 다저스타디움에서 4승 1패, 평균자책점 1.81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류현진과 선발로 맞붙을 원투 리는 9승 2패, 평균자책점 2.51을 올린 명실상부한 필라델피아의 에이스다.

클리블랜드에서 뛰던 2008년 22승 3패, 평균자책점 2.54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뒀던 류현진은 필라델피아에서 7승을 받았다. 통산 134승(80패)을 올려 현역 원수 투수 중 앤디 페티트(뉴욕 양키스·250승), C.C. 사바시아(양키스·199승), 마크 벌리(토론토·178승)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승리를 수확했다. /연합뉴스

다저스에 특히 강해 지난해까지 통산 5경기에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0.95를 기록했다. 다저스타디움에서 유독 잘 던져 3경기에서 1승, 평균자책점 0.77을 남기고 다저스 타선을 공포 묶었다. 타선이 리를 상대로 대량 득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류현진은 긴 이닝을 던지며 실점을 최소화해야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 /연합뉴스

전국체전 광주시 고교 야구대표 선발전

내달 2일부터 무등경기장

전국체전 광주지역 야구대표가 가려진다. 제 94회 전국체전 고등부 2차 예선 및 일반부 예선대회가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다. 고등부 2차 예선은 2일 오전 10시 광주일고와 동성고의 경기를 시작으로 진흥고-광주일고(3일), 동성고-진흥고(4일)의 대결로 전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가 1차 예선 우승에 이어 2차 예선에서도 우승팀이 될 경우, 광주일고가 광주시 대표로 전국체전 메달에 도전하게 된다. 2차 예선에서 동성고나 진흥고가 우승하게 되면 3차 예선을 통해 고등부 전국체전 진출팀이 가려진다. 일반부에서는 동강대와 송원대가 2일부터 4일까지 3차전을 치른다.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틀 태극전사, 무패 행진 16강 간다

U-20 월드컵 오늘 밤 나이지리아전

국제 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한 ‘어린 태극전사’들이 ‘무패 행진’으로 조별리그 유종의 미를 꿈꾼다. 한국은 27일 밤 11시(한국시간)부터 터키 이스탄불의 알리 사미 엔 아레나에서 아프리카의 ‘난적’ 나이지리아와 2013 U-20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른다. 이광중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1무를 거둬 승점 4, 골득실 +1로 2위에 올라 있다. 포르투갈과 승점, 골득실차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4득점으로 포르투갈(5득점)에 한점 뒤져 2위에 자리했다. U-20 월드컵에서는 조 1, 2위까지 자동으로 16강에 진출하고, 각 조 3위인 6개국 중

성적이 나은 4팀이 16강에 오른다. B조 4개 팀이 2경기씩 치른 가운데 한국은 무패행진을 달려 16강 진출 가능성이 무척 높다. B조에서는 쿠바가 2연패를 당해 최하위로 처져 있고, 포르투갈과 한국, 나이지리아가 승점 1 내에서 순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은 나이지리아에 이기면 포르투갈의 경기 결과에 따라 조 1위까지 오를 수 있고, 비기더라도 조 2위를 확보해 16강 진출을 확정한다. 16강 진출여부는 물론 대진이 결정되는 경기인 만큼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태극전사’들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지난 두 경기에서 한국은 경기 시작 10분 이전에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쿠바와의 1차전 2-1 역전승, 포르투갈과의 2차전에서는 2-2 무승부를 일했다. /연합뉴스

포르투갈과 더불어 ‘강공’을 자랑하는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초반 실점하지 않도록 수비 집중력을 이어가면서 득점 기회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는 한국에 이어 B조 3위(승점 3)에 자리했으나 이번 대회 2경기에서 5골을 폭발하며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팀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이광중 감독은 나이지리아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포르투갈만큼 뛰어나지만, 조직력은 다소 허술하다고 판단해 날카로운 패스 등으로 상대의 틈을 파고들어 역습을 노릴 계획이다. 이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패스를 연결해가자 지난 경기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조 2위 이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실전처럼... 26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 미라마 아흐아 바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U-20 한국대표팀 회복훈련에서 한성규(오른쪽)와 강윤구가 미니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